

부산연극제 개요

釜山演劇祭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演劇은 그 나라의 言語와 藝術의 總和的 表現이며 그것은 民族演劇의 定立으로 通하는 길이다. 그러나 민족의 숨결과 손길은 오직 알찬 創作劇에서 찾을 수 있는 바 우리는 창작극을 振興하고 普及시킴으로써 한국 연극의 질적 향상과 세계로 통하는 出口를 위하여 개최하고 지방연극을 중흥시킨다는 목적을 지닌다.

부산직할시 주최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주관으로 1983년 5월에 4개 극단이 참가하여 제 1회 부산연극제를 치룬 이래 올해로 그 다섯번째의 연극제를 갖게 된다.

본 연극제에서 선정된 1개 극단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연극협회 전북 지부가 주관하여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 5회 전국지방연극제에 부산직할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개인상은 5개부문 6명이 받게 되는데 연출상 1인, 희곡상 1인, 연기상 2인(남,여) 미술상 1인, 특별상 1인이다.

1987년도 각극단별 공연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회 부산연극제 공연일정표

87. 3. 13 ~ 4. 1 (18일간)

3월 13일 무대연습 · 3월 20일 시행사

평일 오후 5시 · 2회 7시 30분

토 · 일요일 1회 : 오후 3시 · 2회 : 오후 5시 30분

각 극단 3 일 5 회 공연 (첫날 첫공연 없음)

참가극단	공연일시	작 품 명	작 가	연 출	기 획	출 연
무대연습	3월 13일					전 참가극단
처 용	3월 14~16일	수 업 (축하공연)	이오네스코 오징자 / 역	이동재	손병태	이돈희 · 이화진 · 박명희
현 장	3월 17~19일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같소?	이 강 백	차동성	김덕휘	김종혁 · 김덕휘 · 김제아 김기환 · 이윤희 · 신용진 권기원 · 정미혜 외다수
	3월 20일	공연 없음				
전위무대	3월 21~23일	마태오의 땅	설 재 록	전성환	원창호	이창희 · 박정수 · 이상준 김미희 · 강경애 · 최정숙 김용관 외다수
예술극장	3월 24~26일	노인 새되어 날다	신 태 범	김경화	신용우	이영식 · 유 순 · 정행심 박희철 · 김익현 외 다수
부 두	3월 27~29일	잡귀, 잡신은 몰알로	이 성 규 이 윤 택 이 정 허	이성규	이윤택	조문선 · 최영아 · 김미경 김경수 · 박은홍 외다수
예 랑	3월 30~4월 1	갯 마 을	오영수/소설 이종근/각색	이종근	하종찬	신동배 · 배기철 · 정동숙 노주화 · 윤필순 · 박가영 외 6 명

劇團 부두劇場

제 5 회 부산연극제참가작품
제13회 정기공연

잡귀, 잡신은 몰알로

이성규·이운택·이정허 / 공동창작 이성규 / 연출

연출일기

'87. 3. 27~29 (27일 : 7시30분
28, 29일 : 3시, 5시30분)

대표 / 이 성 규

솔직히 말해 나는 전통극이나 총체극을 잘 모른다. 그리고 한국의 歷史나 민속에 대한 상식도 박약한 편이다. 소위 적당히 농땡이 치며 적당히 서구화된 잘못 교육된 사람의 하나다. 연극을 한답시고 뛰어다니게된 요즘을 부닥치게 되는 것들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자각과 잘못된 삶에 대한 슬픔 같은 것들이다.

처음 우리지역의 전통 연희인 「동래야류」의 할미과장을 연극화 해보자고 했을 때 양반사회의 「처첩」 문제를 비판한 짤막한 이 소재가 어떻게 나의 또는 우리의 문제로 탈바꿈 되어질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연극제」에는 꼭 참석을 해야 했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먼저 동래민속관을 찾아 연습장면을 지켜보고 VIDEO로 다시 감상하였다. 몇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각시」에게 홀려 「할미」를 발길질로 죽이고 마는 「영감」의 어설픈 행위를 보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내 STYLE대로 적당히 얼버무릴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제대각시」와 「할미」라는 양극의 관계에 「영감」이라는 기본설정, 이 삼각의 인물 구성에 상징성과 문제를 던져주면 1차적인 극의 구조는 되는 셈이다. 천 재동 선생님을 찾아뵙고 몇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들었다. 「제물포宅」는 「제물포宅」의 다른 이름이고 제물포는 외래문물이 교류되는 개항장이라는 점, 「할미」의 문들어진 코는 「영감」의 문란한 性生活에서 파생된 몸쓸병일지도 모른다는 추측.

소극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운택씨가 1차적인 극의 구성을 해주었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1차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이곳」「우리」의 문제로 의미망을 확장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탈놀음이 보여주는 왜곡, 과장된 동작과 표현을 빌어 기본적으로 이극을 「상황상징劇」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점, 劇의 구조속에 희·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깔아야겠다는 점.

당시 「상여」가 나가는 장면은 구경꾼들로 부터 좀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청성스럽고 길게 꾸며진 것이라면, 이 劇도 기본적으로 「애도의 劇」으로 꾸며야겠다는 생각. 극의 진행속에 양극의 이미지를 교차하면서 재미를 잃지 않게 해야겠다는 점 등을 떠올리며 이정허 스님과 2차로 극을 구성하였다. 이 연극에는 「고급」「전위」「실험극」 따위의 요소는 없다. 좀 쌍스럽고 조금은 천박한-그렇다고 「전통극」「마당극」「총체극」 따위의 대명사도 붙일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보아주길 바란다.

이 작품의 공연이 「가마골」 소극장의 공동대표인 이운택씨의 호주머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같이 고생하는 착한 식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극단 부두극장 공연보

회	작 품 명	작 가	연 출	일 시	공 연 장 소	출 연 진	공연 회수
1	건축사와 왓서리황제	F. 아라발	이성규	84. 10. 4 ~ 14	부 두 소 극 장	김하균 · 김영구	16
2	마지막 테이프	S. 베케트	권오진	85. 2. 23 ~ 27	"	김경수	10
3	환도와 리스	F. 아라발	이성규	85. 4. 19 ~ 21	시 민 회 관	김영구 · 유성희 김경수 · 김광보 · 조문선	6
4	뱃 줄	유진 · 오닐	권기택	85. 6. 22 ~ 23	부 두 소 극 장	박창화 · 장유리 · 김광보 곽성순 · 백명숙	4
5	대사없는 일막	S. 베케트	구소영	85. 7. 19 ~ 23	"	조준백	10
6	에쿠우스	피터 · 웨퍼	이성규	85. 11. 9 ~ 30	"	허대영 · 김하균 · 임익두 김성옥 · 김정옥 외	24
7	"	"	"	85. 12. 5 ~ 25	"	"	26
8	영산회상	조종두 구성	조종두	85. 12. 28 ~ 31	"	조종두	9
9	마스게임	윤 대 성	김하균	86. 4. 2 ~ 3	시 민 회 관	김하균 · 조문선 · 김경수 권기택 · 최영아 · 박창화 외	4
10	감마선은 달무늬 얼룩진 금잔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폴. 진 델	박영민	86. 7. 25 - 8. 3	가마골 소극장	김미경 · 김채희 · 이유리 홍정자	20
특별 공연	그다음!	테렌스 맥넬리	이성규	86. 9. 16 ~ 30	"	김경수 · 김미경	30
11	시즈위벤지는 죽었다	A. 후가드	장희용	86. 11. 4 ~ 17	"	김광보 · 박은홍	18
12	연희단거리패와 합동공연 히 바 쿠 샤	홍 가 이	이윤택	87. 12. 15 ~ 18	시 민 회 관	박지일 · 김경수 · 박은홍 김미경 · 이유리 · 김정옥 외	9
"	"	"	"	87. 1. 4 ~ 24	가마골 소극장	"	40

작 품 해 설

우리지역의 전통연희인 「동래야류」의 「할미과장」을 본으로 하여 현대적으로 劃化한 작품.

자손 대이를 아들 하나 얻은 구실로 「서울각시」에게 홀려 고향을 등지고 사는 「영감」과 바람난 영감을 찾아 김해 명지에서 올라온 촌로 「할미」의 이야기. 주소쪼가리 하나 달랑 들고 단신 上京한 할미가 서울의 여러가지 피폐한 상황들과 만나고 천신만고 끝에 찾은 「영감」의 우연스런 발길질로 죽고마는 村劇形式의 이劇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1차적인 극의 주제를 「전통과 외세」 「지금 이곳 우리의 삶의 풍속도」로 의미망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투리-표준말, 창-뽕짝, 팝송, 탈춤사위-사교춤 등등-양극의 이미지를 선, 색, 리듬으로 혼합시켜 총체적으로 꾸민 연극 「동래야류」의 「할미과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영감」 「할미」 「제대각시」 「의원」 「맹인」 「항도꾼」을 기본 인물 설정으로 하되 「건달」 「行人들」을 추가하여 재해석, 재구성한 작품으로 탈놀음이 가지고 있는 왜곡, 과장된 동작으로 근대화, 물질주의의 歷史인 흐름속에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이기 위해 「상황상징劇」 「애도劇」의 꼴로 묘사한 작품.

CAST



영감
조 문 선

• 향도꾼, 치어걸 등등



할미
최 영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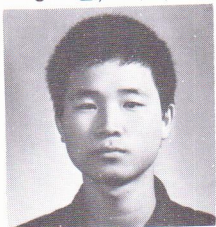
서울각시
김 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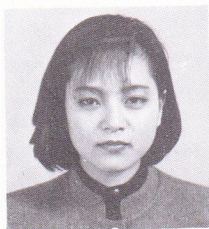
의원·맹인
김 경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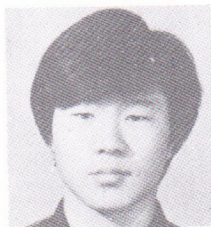
가수·진달
박 은 홍



배 병 준



이 은 지



최 정 두



나 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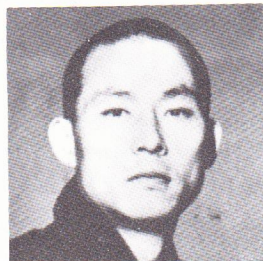


윤 석 란

STAFF



기획·공동구성
이 윤 택



공동구성·이 정 히



무대감독·박 지 일



조명·김 광 보



음향·구 자 현



의상·엄 명 히



장치·김 진 우

◆ 차기공연 예고 ◆

86년 「NEXT」에 이은 87 가마골 희극무대
브로드웨이의 〈웃음폭탄〉 날사이먼의 劇

뜨거운 戀人들의 마지막

손 홍 기 / 연출

박지일·이유리·이영아·이지원 / 출연

87. 4. 11(토)~26(일)

평일 PM 7시 토·일 4시·7시

가마골 소극장 (공연문의 ☎ 0869)

제5회 부산연극제



시민회관 소강당

'87.3.13~4.1

• 평일 : 오후5시·7시30분 • 토·일요일 : 오후3시·5시30분

* 각 극단 첫날 첫공연은 없습니다.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후원 / 한국문예진흥원·부산시교육위원회
부산일보사·부산문화방송·KBS부산방송본부